

왕복 6차로에 차선은 16~18개 ‘헛갈리는 무진대로’

방음벽 공사 과정 수차례 차선 조정...운전자들 혼란 광주경찰 교통사고 잦아10차례 재포장 검토 요구 시공사 “사고 나면 보상하겠다” 약속서 내고 거부

건설사가 왕복 6차로 도로 위에 방음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도 차선 흔적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해당 도로에 그려진 16개~18개 차선으로 운전자들의 혼란 및 사고 위험 등을 예상하고 ‘재포장 공사’를 요청했지만 건설사가 ‘사고 발생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서를 내고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가 방음터널 공사 등 자신들의 이

해 관계에 따라 차로를 막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공사로 교통 체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했으면서도 정작 시민 교통을 최소화 하는데는 인색,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J건설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S아파트와 인접한 무진대로 300m 구간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 세 차례 차로 변경을 통해 남겨진 16~18개 차선 제거를 위한 광주청의 재포장 공사 요청을 거절했다.

해당 건설사는 방음터널 설치 공사 과정

에서 지난해 12월 6차로의 각 차로(폭 3.5m) 폭을 3m로 줄여 생김 폭 1.5m 공간을 활용, 방음터널 설치 공사를 진행한 것을 비롯, 세 차례의 차로 변경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16개 이상의 차선 흔적이 도로에 남겨져 있는 상태다.

건설사가 차로 폭을 줄이고 방음터널 공사를 진행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교통 체증 뿐 아니라 차선 흔적이 계속 남겨지면서 차선 혼선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게 광주청 설명이다.

방음벽 공사로 무진대로 전체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평소와 견줘 30분 이상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도 현실화됐고 야간이나 비가 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차선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게 광주청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광주청은 이같은 민원 등을 감안, 해당

건설사측에 도로 재포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10차례가 넘게 도로 개선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설사는 또 광주청에 지난 16일 ‘(차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포장 및 재도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광주지방경찰청의 거듭된 개선 요구에 ‘(차선·포트홀로 인한) 사고 피해는 건설사에서 보상하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변경된 차선을 지우지 않고 깎아내고 덧칠하게 될 경우 차선 흔적이 남아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최근에도 공사 구간에서 3차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해 쾌적한 도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설사측은 그러나 “공사구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나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지 차선 흔적이 남겨지면서 빚어진 사고는 아니며 차선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재포장을 해준 건설 현장 사례가 없다”면서 “재포장이 아니라도 도로 색깔과 비슷한 ‘코팅제’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 재포장을 할 경우 공사비는 1억원 가량으로, 절삭작업만 이뤄질 땐 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주변 도로 정비에 나서면서도 정작 U대회 경기장으로 통하는 해당 도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공기업 신뢰 훼손 한전 직원들 중형

뇌물받은 나주지사 5명에게 법원, 5년~1년6개월 선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들에게 뇌물을 상납받은 한전 나주지사 전·현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공기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직원들에 대해 엄벌의지를 밝혔다

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나주지사 전 전력공급팀장 권모(49)씨와 전 배전파트장 한모(57)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지사장 노모(54)씨 등 2명은 징역 1년 6개월, 오모(58)씨는 징역 3년 등 모두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한전 직원 2명과 뇌물을 준 업자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전 직원 7명은 벌금 1000만~9000만원과 함께 개인별로 인정한 뇌물 액수에 해당하는 960만~815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기업인 한전 나주지사에 근무하면서 업자들로부터 정기·반복적으로 돈을 받았고 한전 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 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업자들은 이른바 흥후를 뒤 가면서 전체 공사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돈을 모아 지사장에게 말단 직원까지 지급별로 액수를 달라며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1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인근 아파트 건설과 관련 방음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0m 구간 수차례 차로 변경으로 차선 흔적이 남아 야간 및 우천시 혼선을 초래한다는 운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른쪽 위 사진은 하얀 차선이 중첩돼 있는 방음터널 내부 모습.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화물차 기사 ‘음주 살인운전’에 일가족 품비박산

여수서 점심 반주 만취운전...승용차 들이받아 아내·딸 숨겨

음주운전 차량에 단란한 가정이 품비박산났다.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는 점심 때 반주로 마셨으니 ‘별 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40분께 여수시 해산동 교차로에서 사곡터널 방향으로 가던 22t 환루트럭(운전자 김모·39)이 앞서 가던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김모·34)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있던 김씨 아내 윤모(33)씨와 딸(3)이 현장에서 숨졌고 김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로 여수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잦은 출장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던 김씨가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출장길에 나섰다가 잠번

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화물트럭 운전자 김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화물트럭 운전자는 경찰에서 “순전에서 여수까지 개인 화물을 배송한 뒤 점심 때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화물 배송을 위해 순천으로 가던 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사학 비리’ 이홍하씨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검찰, 벌금 237억원도

검찰이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전북·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5억원 등 10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 대한 909억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9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다음 달 16일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용자증 보여달란 기사에 주먹질



○“국가유공자 증서”를 보여달라는 시외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80대 노인이 경찰서행.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모(82)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산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외버스기사 김모(46)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짜’ 국가유공자증서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증서’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버스기사의 말투가 자신을 못 믿는 것 같아 술집에 폭력을 휘둘렀다고 설명.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장기에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회차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인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